백화점 고객들 씀씀이 커졌다

롯데 광주점·신세계 구매액 작년보다 4~11% 상승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늘어… 소비심리 회복 조짐

올해 들어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한 고객들의 씀씀이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는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신세계백화점 고객들의 객단가(1인당 구매금액)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상승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점포를 기준으로 조사한 고객들의 평균 객단가가 올해 6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오른 것을 감안하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객단가 신장률은 2배 이상 높았다.

객단가는 유통업체들이 고객들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총 판매액을 구매건수로 나눈 것으로 고객들이 점포에서 한 번 결제할 때 얼마씩 썼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 1~2월 객단가가 4%가량 늘었다.

롯데백화점이 전국 모든 점포를 상대로 조사한 고객들의 평균 객단가는 9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상승했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점포의 객단가가 작년에 비해 7% 올랐다.

대형마트 역시 고객들의 건당 지출액이 늘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올 2월 평균 객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올랐다.

이는 전국 점포의 평균 객단가(5만3천267원)가 지난해보다 2.9% 오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상승세다.

홈플러스도 전국 점포의 1~2월 평균 객단가가 작년에 비해 4.4% 상승한 5만4천500원을 기록했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4만3천원에 머물던 객단가가 5만원으로 16.3%나 뛰었다.

신년 정기세일을 비롯해 설, 졸업·입학 시즌 등 유통업체들의 매상을 올려주는 조건은 작년과 차이가 없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고객의 씀씀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성정장이나 와이셔츠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성복 매출도 상승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신사복 매출이 지난해 1~2월에는 11% 감소했지만 올해는 15%나 상승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올 1~2월 신사복 매출이 전년보다 7.6%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나타난 매출 상승은 경기가 침체됐던 작년과 대비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영역까지 경기가 살아나려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청용 기아차 '쏘렌토R' 탄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주 볼턴에 위치한 딜러숍(판매점)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 선수에게 '쏘렌토R'을 전달했다.〈기아차 제공〉

光銀 우량은행

BIS 비율 상승 …건전성 향상

광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은행의 BIS 비율은 13.82%로 3개월 전보다 0.99% 포인트 상승했다. 2008년(12.12%)과 비교했을 때는 1.7% 포인트 올랐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금감원은 10%를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업공시 제대로 활용하세요

한국거래소 투자 설명회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유가증권 발행사들의 기업 공시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대부분 난해한 회계용어와 숫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에서 '기업공시를 활용한 투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공시를 활용한 투자전략'(김동하 머니투데이 팀장),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전자공시시스템 활용법'(임흥택 한국거래소 과장), '성공적인 주식투자 전략'(오선현 삼성증권 파트장)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 문의 광주사무소(062-367-2237~8)

한편,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는 국내 유가증권, 선물 등 거래시장 개설 및 관리, 유가증권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유가증권 통합 거래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상추 4kg 3일엔 9000원→ 10일엔 2만7000원

광주 생활물가 심상찮다

폭설·유가상승 여파 농산물가 급등

폭설과 한파 탓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반구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여,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때 아닌 추위가 계속 되면서 농산물 값이 크게 뛰었다. 특히 시설 과채류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들 품목은 바로 출하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상추(치마·상품)가 4kg당 3일 9천원에 거래되던 것이 10일 2만7천원으로 일주일 사이 3배나 폭등했다.

오이(취청·상품)는 20kg당 3일 8만4천원에 거래되던 것이 10일 12만원으로 42.8%나 올랐으며, 1년 전보다는 93.5%나 급등했다.

풋고추(상품)는 10kg당 8만5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70.5%, 호박(조선애호박·상품)은 8kg당 2만7천원에서 4만4천원으로 62.9% 각각 뛰었다.

깻잎(상품)은 2kg당 1만6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43.7%가, 가지(상품)도 10kg당 3만4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41.1%나 올랐다.

국제유가도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가는 지난 9일 77.65달러까지 올라 다시 8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한 달 전보다 7.59달러, 1년 전보다 33.94달러 비싸졌다.

■ 광주 생활물가 동향

aT 농수산물 유통정보 도매가격 기준 (단위:원)

	3월 10일	3월 3일	증감률
상추 4kg	27,000	9,000	▲ 300%
오이 20kg	120,000	84,000	▲ 42.8%
풋고추 10kg	145,000	85,000	▲ 70.5%
호박 8kg	44,000	27,000	▲ 62.9%
깻잎 2kg	23,000	16,000	▲ 43.7%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3월 첫째주 ℓ당 1천661.94원으로 4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자동차용 부탄의 광주지역 충전소 판매가격은 지난주 ℓ당 951.53원으로 전주보다 33.71원이, 1년전보다 78.4원(8.9%)이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새얼굴

"서민과 함께하는 금융기관 될 것"

윤 준 식 신협 광주전남본부장

"신협이 명실상부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준식(52) 신임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11일 "지속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바탕으로 각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지기 경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신협은 지난해 대외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금과 예금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모든 조합의 당기순이익 실현, 각 부문별 사업 목표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전북지역 본부 감독팀장, 인천경기지역 본부장, 신협중앙회 자금운용부장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